

유니트론텍, 'SDM플랫폼 SW/클라우드 개발 국책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

- ▶ 건설기계 자율주행 및 자율작업 대응을 위한 'SDM플랫폼' 개발 목표
- ▶ 2029년까지 클라우드 기반 중앙제어 인프라 소프트웨어 개발 추진

<2024-10-15> 주식회사 유니트론텍(142210, 대표 남궁선)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건설기계 디지털 솔루션 대응을 위한 SDM 플랫폼 개발'(이하 "총괄과제")의 신규 과제 중 'SDM(Software Defined Machine) 플랫폼 중앙제어 인프라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지향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이하 "2세부 과제")국책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SDM 플랫폼'은 자동차 산업에서 도입된 SDV(Software Defined Vehicle) 개념을 건설기계로 확장하여, 하드웨어 중심의 기존 시스템을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니트론텍은 이번 과제에서 건설기계의 자율화(자율주행 및 자율작업)와 디지털화를 위한 'SDM 플랫폼' 개발을 목표로 하며, 클라우드 기반의 중앙제어 인프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시간 데이터 교환, 원격 업데이트(OTA), 자율작업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는 SW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개선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작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특히, 자율주행 및 자율작업 기능은 건설 현장에서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로 평가된다.

"총괄과제"는 3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니트론텍은 "2세부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주)이로움 등과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유니트론텍은 1세부 과제 '건설기계 디지털 솔루션 대응을 위한 SDM 전장플랫폼 아키텍처 개발'에도 CCU(Centralized Computing Unit)의 개발주체로 참여한다. 2개 과제는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진행되며, 유니트론텍의 사업비는 총 48억원이다.

한편, 유니트론텍은 최근 부설연구소의 자체 연구개발과 전략적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2021년부터 'Centralized 아키텍처기반 레벨4 자율주행 컴퓨팅 플랫폼 상용화 기술개발' 국책과제를 수행 중이며, 로봇틱스 AI컴퓨팅 모듈인 'URC100'의 상용화, 올해 1월에 인수한 자회사 '토르드라이브'의 자율주행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 중이다.

▣ 자료문의 : 유니트론텍 최민호 과장, 최재형 부장 (02-573-6800)